



... 나무를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파다가
아주 오래전에 묻혀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고고학 전문가는 2,000 여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로마와의 무역교류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History



바바나 디 Bhavana Dee 는 1970 년대 초기에 오로빌에 온 미국 여성입니다. 그 시절 다른 많은 일 가운데 오로데어리 AuroDairy 에서 우유의 양을 재는 일을 했고,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를 심었으며, 소규모의 마을 사업체를 양산하는 가죽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1983 년에 그녀는 오로빌 빌리지 액션 그룹 Auroville Village Action Group 을 세워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의 오로빌의 역사와 AVAG 의 발전을 이 장과 다음 장에서 계속 적고 있습니다.

초창기

물리적 실체로 오로빌은 고작 5km 반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토지, 물, 사람과 역사의 환경 속에 자리합니다. 1968 년 오로빌이 시작되었을 때, 어서 오라고 반기는 풍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햇빛과 별에 타들어 간 마르고 붉은 땅이 사방 끝까지 펼쳐져 있고, 그 아래 실만한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글썄, 그 자체가 의심이 갈 정도로 보이는 삐죽삐죽 튀어나온 보리수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내륙의 마을에서 푸두체리까지 걸어가는 여행객에서 물을 제공하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 the ancient legend 인 칼루벨리 시다 Kaluvelli Siddha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후일 "아주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저주받은 불모지를 아름다운 초록의 땅으로 변성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배기들

물론 오로빌리언들이 예언처럼 이 땅의 구원자로 운명지어 졌는지는 알 수 없지요. -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이야기 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래가지 않아 많은 오로빌리언들이 나무를 심고 수자원을 보호하고 유기농에 완전히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로빌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 가지 희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일부는 자기네 땅을 오로빌에 팔아서 다른 곳에 더 나은 땅을 샀습니다; 일부는 오로빌에 일하러 왔습니다. 대부분 육체 노동자나 가사 보조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건축 자재를 납품하고, 일꾼들을 팀으로 꾸려서 공급하는 사업을 오로빌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로빌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그들이 고작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진짜배기 사람 real people"으로 대우받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서 책임있는 자리로 승진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친절한 외국인들을 그들의 교육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는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 그리고 오로빌리언들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응답했습니다. 물론 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오로빌에 그다지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 자기 마을의 정치나 그들과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날라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 때문이지요. 그리고 몇몇은 오로빌을 첫째로 도둑질 할 대상으로 보았지요.

상황

1968 년 오로빌이 시작하였을 때 이 일대는 모두 굉장히 가난했지요. 거의 모든 초목이 이미 사라진 벌거벗은 땅이었습니다. 자주 폭풍이 불고, 몬순때의 큰 비는 그나마 빈약한 표토를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빗물이 고원으로부터 바다로 쏟아져 내려가면서 골짜기를 파들어 갔지요. 지역 주민들은 팜나무 앞으로 지붕을 덮은 작은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몇몇 가정에서 여자들은 한 번에 한 명씩만 집 밖을 나올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입을 수 있는 사리가 딱 한 벌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몇 마을에서는 물을 갖기 위해 2km 를 걸어나가야 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척박한 땅에서 기른 기장으로 만든 죽만을 먹고 살았습니다. 보기에다 영양실조였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땅을 오로빌에 팔라는 마더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싶어했지요. -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말, 새로운 방식의 삶.

상호부조

동시에 그들은 오로빌리언에게 지역 농사의 실제와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지역 우상에 대한 단순한 숭배는 “시다 Siddhas”라고 불리는 위대한 요기의 풍요로운 드라비다 전통을 완전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시다는 타파샤 tapasya 를 통해서 거대한 심적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심어진 영성을 시험하는 시련의 와중에도 밝은 미소와 인내와 도움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 당시에 오로빌은 대부분의 일꾼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일꾼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는 데도 일시적으로 돈이 떨어진 오로빌 고용주에게 음식을 날라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대 유적지

몇몇 오로빌리언들이 언제 왜 나무들이 모두 벌채되었는 지 알아내기 위해 이 지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두체리의 프랑스 연구소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 식민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많은 논문들을 갖고 있었지요. 타밀 시인이자 타밀 학자로 알려진 메낙시가 1976 년 오로빌에 합류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전설의 뿌리를 캐 들어갔습니다. 그 전설은 고대 문헌에서 확인되었지요. 오로빌이 자리잡고 있는 땅은 250 여년 전에 코끼리와 호랑이가 사는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이룸바이 사원과 “코타카라이 (성채의 구석이라는 뜻)”라는 마을 이름이 예시하듯 이 지역에 왕국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파다가 아주 오래전에 묻혀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고고학 전문가는 2,000 여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로마와의 무역교류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지난 날의 영광을 반영할 만한 것은 거의 남은 게 없습니다.

새 길

그럼에도 사람들의 가난에 대한 대답은 과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에 벅차 있는 **지금에**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데 초점을 둔 오로빌은 모두를 위한 이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고, 일자리를 찾는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초기 오로빌리언들은 이 땅을 되찾기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적으로 제방쌓기와 나무심기, 자연보호와 농사로 토지가 복구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새는 지붕을 고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데 충분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보건소는 주민들 사이에서 질병이 만연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또한 오로빌이 커짐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건축업에 종사하여 일을 배웠고, 경영 기술을 쌓았습니다. 향 만들기, 뜨개, 가족과 같은 소규모의 수공예 사업체가 다양하게 생겼는 데, 종종 오로빌리언의 집에서 엮지요. -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수입이 늘었지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오로빌리언들은 교육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간절할 울음에 응답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하나씩 오로빌 커뮤니티에 입양되거나 작은 숙박시설이 있는 교육적 실험의 일원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30 여년이 지난 지금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오로빌 커뮤니티의 기둥입니다. 많은 환경 활동 그룹, 하청업, 마을에 초점을 둔 활동과 발전 계획이 진행중 입니다. 이들은 다음 장에서 기술될 것입니다.